

## C-11.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의 치료증례

진미성<sup>1</sup>, 윤정호<sup>1</sup>, 정의원<sup>1</sup>, 김창성<sup>2</sup>, 최성호<sup>2</sup>, 조규성<sup>2</sup>, 채종규<sup>1</sup>, 김종관<sup>2</sup>

<sup>1</sup>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치주과학 재생 연구소

<sup>2</sup>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치주과학 재생 연구소, BK21 의과학 사업단

### 연구배경

괴사성 궤양성 질환(necrotizing ulcerative disease)은 전신적 저항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 회감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전의 병력, 불량한 구강위생, 부족한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 영양부족, 최근의 전신적 질환, 음주와 흡연 등이 소인(predisposing factor)으로 알려져 있다.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 NUG)은 병소가 치은 부위에 국한된 경우를 말하며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징후는 동통과 치간 치은의 궤양 및 치은 출혈을 들 수 있다. NUG의 치료는 초기의 원인 관련 치료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질환의 소인을 파악하여 해소시켜 주는 것과 치태조절이 필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적 저항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증례는 NUG로 진단된 두 환자의 치료 증례이다

### 연구방법, 재료 및결과

#### 증례 1

1) 증례: 22세 남환

2) 주소: 1달 전부터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거리는 것 같으며 입 냄새가 난다.

3) 경과 및 처치

내원 당일칫솔질 교육과 치은연상 치석제거 및 H<sub>2</sub>O<sub>2</sub> 드레싱을 하였고, 2일 후 전반적인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주 후 치은 동통 및 궤양, 출혈 양상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괴사되었던 치간 유두부의 치유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구강 위생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몇몇 부위에는 여전히 탐침시 출혈이 존재하였다. 설측 변위된 #12 치아에 대해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고, 칫솔질 재교육과 함께 변위된 치아의 치태조절을 위해 외줄모 칫솔을 처방하였다. 술후 1개월 15일 후 환자의 구강위생 상태는 호전되었으며 괴사되었던 치간부 치은의 외형도 일부 괴사가 심했던 부위를 제외하고는 향상되었다. 치은의 건강 상태는 술후 5개월까지 만족스럽게 유지되었으며 치간부 치은의 외형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 증례 2

1)증례: 22세 남환

2)주소: 1주일 전부터 잇몸이 붓고 아프다.

3)경과 및 처치:

내원당일 심한 동통으로 치석제거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H<sub>2</sub>O<sub>2</sub> sponge 적용과 식염수 및 클로르헥시딘 세척으로 침착된 치은연상치태를 최대한 제거하고 클로르헥시딘 구강 양치액을 처방하였으며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부위만 칫솔질하도록 하였다. 또한 괴사가 일부 변연치은 및 부착치은까지 연장되고 양쪽 악하 림프절 촉진시 동통을 호소하는 등 치은의 감염 양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어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다음 날 치은연상에 국한하여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였다. 4일 후 내원시 괴사 및 궤양 소견이 거의 없어지고 동통도 많이 감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은연하까지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치석제거 3주 후 치은의 괴사와 궤양은 치유된 양상을 보였다.

## 결론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환자에서 즉각적인 초기 치료를 시행하여 우수한 치료결과를 얻었다. 본 증례에서는 장기적인 치은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추후 교정 치료를 병행, 자가 구강 위생 술식이 용이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철저한 구강 위생 유지와 규칙적인 생활습관 확립과 같은 환자 자신의 노력과 주기적인 재내원을 통한 유지치료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